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6. 14.(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 지켜달라..

- 한덕수 총리 서울 보라매병원 방문, 17일 서울대 의대 비대위 집단휴진 및 18일 의협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설득·당부

- 한덕수 총리는 6월 14일(금) 오전 10시 서울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에 남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였습니다.
-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4개월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 비대위와 대한 의사협회가 17일과 18일 집단으로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환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정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에 주어진 법적 책임이기에 앞서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환자와의 신뢰가 의사선생들이 평생을 바쳐 의업에 헌신해온 이유일 것으로 집단 휴진이라는 결정을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 했습니다.
- 정부는 이제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수련을 정상적으로 끝마치는 데 아무 지장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전공의들에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명령,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금지 명령을 모두 철회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의료계와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할 뜻이 있으며 전공의들이 원한다면 의대교수님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까지 함께 대화할 것입니다.

- 서울보라매병원은 서울대와 함께,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증·위급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곳입니다.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까봐 중증 환자분들은 매일을 고통과 불안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수술 연기 통보가 올까 봐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들에게 집단휴진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한덕수 총리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전공의들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집단행동을 거두시고 전공의분들에게 차분한 선택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일 거라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성현국 (044-200-2293)
		담당자	사무관	고연주 (044-200-229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